대구 초고령사회 진입
65세 이상 인구 20.1%

대구시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국제연합(UN)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다.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대구광역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7만5318명으로 전체 인구 236만8670명의 20.1%를 차지했다.

2017년 말 노인 인구 비율 14.0%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24년 4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알린 것이다.

특·광역시 중 부산시(23.1%)에 이어 두 번째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전남 26.5% △경북 25.2% △강원 24.5% △전북 24.5% △부산 23.1% △충남 21.7% △충북 21.3% △경남 21.1%에 이어 9번째이다.

시는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대구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를 10월까지 제정한다.

노인복지기본조례는 △중장기, 연차별 노인복지종합계획 수립·시행 △노인의 정책 수립 참여 △주기적인 노인실태조사 등을 담았다.

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과 노인복지법 '고령친화도시'(2026년 1월시행) 기준을 반영, 고령친화도시 조성 로드맵을 마련, 구·군의 고령친화도시 지정도 지원한다.

현재 추진 중인 노인복지사업들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시행한 '2023년 대구시 노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 및 노인의 욕구를 반영, 고도화해 나간다.

'돌봄'(38.7%)과 '일자리'(38.3%) 분야는 정부 정책에 따른 재가요양·돌봄 및 재택의료서비스 확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지역특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및 내실화, 노인일자리 특성화 사업 다변화 등 수요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따라 정책 수요 변화가 큰 '여가활동·사회참여' 분야는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노인 여가시설을 활성화한다.

관계부서·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마련과 체계적인 홍보로 어르신 참여를 활성화하고 만족도를 높인다.

시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고령친화도시 모델과 중장기 노인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대구광역시 노인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계기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를 정비, 노인복지정책을 고도화해 건강하고 활력있는 고령친화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銀, 시중銀으로 재탄생…

금융위, 최종 인가
영업범위 전국 확대
자금조달 부담 완화

관련기사 6면

DGB대구은행이 전국에서 영업이 가능한 시중은행으로재탄생했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의 탄생으로 은행권 과점체제 해소를 위한 '메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인가를의결했다고밝혔다.

시중은행이란 전국에서 영업이 가능한 상업은행을말한다.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이었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가 남에 따라 국내 시중은행은 기존 KB국민·신한·우리·하나·씨티·SC제일은행에 이어 7개로 늘어나게 됐다.

NH농협은행은 특수은행으로 분류된다.

1967년 국내 첫 지방은행으로 탄생한 대구은행은 설립 57년만에 시중은행으로 탈바꿈하게 됨에따라사명을 'iM뱅크'로 변경한다.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인가가 남에 따라 대구은행이 기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 중심의 은행권 과점체제를 흔들수있을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했던 것은 전 은행권 대출·예금의 약 70%를 5대 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과점적 구조의 은행산업을 경합시장으로전환시키겠다는의도에서였다.

대구은행은 수도권과 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를 신설한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이 본점은 계속 대구에 둘 것을 조건으로 걸어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내줬다.

올해 1분기 기준 대구은행의 총자산은 79조원 수준인데 반해 기존 주요 시중은행들의 총자산은 400조~500조원에 달해 격차가 5배 이상 난다.

지역 경기 침체로 대구은행의 연체율이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건전성 우려도 제기된다.

1분기 대구은행의 연체율은 0.64%로 국내 은행의 3월말 기준 연체율(0.43%)을 상회한다.

취약한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지난해 8월 대구은행에서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고객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 개설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조미경 기자

대구 · 경북 4월 취업자 수 감소…

대구 취업자 전년 대비
9천여명↓ 고용률 58.5%
경북 취업자 전년 대비
2만여명↓ 고용률 64.4%

대구·경북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이 사실은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 4월 대구·경북 고용동향'에서 확인됐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대구·경북 2000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을 조사 대상 주간으로 선정해 그 다음 주간에 조사를 한다.

▣대구 고용동향

4월 대구의 취업자 수가 소폭 감소하며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 4월 대구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취업자는 122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000명(0.7%) 감소했다. 고용률은 58.5%로 전년 동월에 비해 1.1% 포인트(p)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2%로 전년 동월 대비 1%p 떨어졌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6000명), 농림어업(3000명), 건설업(2000명)에서 증가했지만,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8000명), 제조업(2000명)에서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만5000명(2.2%) 증가했다. 임시근로자는 2만5000명(11.5%), 일용근로자는 8000명(13.7%)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6000명(2.4%), 무급가족종사자는 2000명(8.1%) 증가했다. 취업 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7000명(2.6%) 감소했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7000명(0.7%) 줄었다. 1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9.2시간으로 0.3시간(0.8%) 감소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000명(8.1%) 감소했다. 실업률은 3.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대구시 15세 이상 인구는 209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1000명(1%)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는 126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3000명(1%) 감소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0.5%로 전년 동월 대비 1.2%p 하락했다.

▣경북 고용동향

4월 경북의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만1000명이 줄었지만, 고용률은 변동 없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 4월 경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147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만1000명(1.4%)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64.4%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했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1만5000명(7%) 증가했고 상용근로자는 2만1000명(3.2%), 일용근로자는 9000명(15.7%)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2000명(0.4%) 감소했고 무급가족종사자는 5000명(3.6%) 줄었다.

'영주 아이! 신나 페스티벌 명랑골든벨' 성료

영주시는 18일 서천둔치 아이! 신나 강바람놀이터에서 '2024 영주 아이! 신나 페스티벌' 의 첫 번째 봄 행사 '명랑골든벨'을 성황리에 마쳤다. 명랑골든벨에 참가한 초등부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사진=영주시 제공〉

홍준표 "TK 통합해 '대구광역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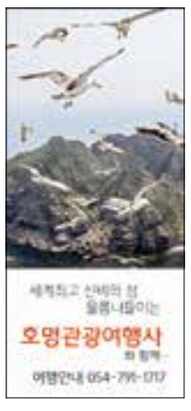
민선8기 들어처음으로대구·경북(TK)의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 17일 대구 수성구 호텔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는 대구경북발전결의회' 참석을 계기로 'TK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홍 시장이 "대구시와 경북도를 '대구광역시'로 통합하자"고 제안하자, 이 지사가 "당장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홍 시장이 처음엔 'TK 통합'을 반대했는데 지금은 찬성해 줘 감사드린다"며 "우리만 통합하는 게 아니라, 광역시가 있는 지역은 통합해야 수도권 일극 체제를 막을 수 있다"고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 역시 "인구가 국력인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며 "(TK가) 각각 발전하는 것보다는 인구 500만의 광역시를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하고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단체장 일정 ❙

윤경희 청송군수는 20일 오전 주왕산관광단지 옛편지 전시관에서 실과장이 참석하는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서별 당면 업무 추진에 철저를 당부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20일 오전 영양군청 소회의실서 개최되는 간부회의에 참석한다.

2025 APEC정상회의 경주 유치

대한불교 조계종 통천사, 효목1동에 백미 1천kg 기탁

대한불교 조계종 통천사는 지난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10kg 백미 100포(250만원 상당)를 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백미는 통천사 신도들이 공양미를 모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계획이다.

주지 선지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신도들이 마음을 모아 마련한 백미가 지역의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사공영림 효목1동장은 "매년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통천사에 감사드리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한반도 제2의 도시 우뚝

광역시 있는 지역 통합
수도권 일극 체제 막아

대구·경북(TK)의 행정통합 논의에 가속도가 붙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 17일 대구 수성구 호텔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는 대구경북발전결의회' 참석을 계기로 'TK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홍 시장이 "대구시와 경북도를 '대구광역시'로 통합하자"고 제안하자, 이 지사가 "당장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홍 시장이 처음엔 'TK 통합'을 반대했는데 지금은 찬성해 줘 감사드린다"며 "우리만 통합하는 게 아니라, 광역시가 있는 지역은 통합해야 수도권 일극 체제를 막을 수 있다"고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 역시 "인구가 국력인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며 "(TK가) 각각 발전하는 것보다는 인구 500만의 광역시를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하고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한반도 제2의 도시

홍 시장은 "대구·경북이 통합, 500만의 대구 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도(道)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가 되면 중복 기능 기관들도 통폐합되고 복잡한 행정체계도 단순화돼 행정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성사되면 2년 후 지방선거에서는 통합된 대구직할시장 1명만 선출하게 된다"며 "대구·경북에서 촉발되는 개편 작업은 대한민국 전체의 행정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실 3단계 행정체계 중에서 도는 이제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이렇게 2단계로 개편하면 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분도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또한 도를 없애고 인근 자치단체끼리 통폐합해 2단계 행정체계를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한다"며 "그냥 불쑥 던진 화두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오던 행정체계 개편안"이라고 밝혔다

▣지방 활성화 절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저녁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수립 이후 1949년도 인구조사 때 2016만명 국민 중 서울 144만명, 경기 180만명 이고 경북이 321만명으로 전국 1등이었다. 산업화가 진행되는 60년대 후반부터 전국에서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해 1970년 인구조사 때 서울 1등 경북 2등으로 순위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점점 늘어 국토면적 11.8%에 과반의 국민이 모여 사는 기현상으로 수도권은 과밀화로 각종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고 지방은 청년들이 해마다 10만명 이상이 서울로 가고 있어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실정"이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이런 현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저출산율 세계 1등'을 꼽고 "수도권 1극 체제로는 저출생 문제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충청, 호남, TK, PK 등 500만명 이상의 시-도 통합으로 다극 체제의 행정개편을 해 지방을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구시와 경북도는 2019년도 행정통합 공론화 등 연구실적이 충분하다"며 △시-도 실무자와 시민단체 학계 등 전문가로 행정통합 TF 구성 △올해 내로 시도의회 의결 △내년 상반기 중 대구경북행정통합 법안 국회 통과 △2026년 지방선거 때 대구경북 통합 단체장 선출 등의 일정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서울과 인구 역전됐던 1970년 이후 100년이 지나 2070년 다시 인구 1등으로 가고 지방시대를 활짝 열면 저출생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용 기자
조여은 기자

대구, 정신건강증진 역량강화

대구시와 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대구청소년문화의집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건강증진기관 실무자 6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정신건강증진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실무자의 요구도를 반영한 기본·심화 교육 과정으로 '24년 9월까지 총 4차에 걸쳐 실무자 2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교육에서는 정신질환과 중독의 이해, 정신건강 상담기술, 1577-0199 전화상담 대응기법을 교육하고,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기법, 정신건강 위기대응의 실제 등 강의와 실습을 병행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현장 중심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자살예방 및 정신 업무 담당 공무원, 정신건강증진기관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 완화 및 소진 예방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상반기(5~6월), 하반기(9월) 총 8회 340명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산림치유, 힐링요가, 향수만들기, 영화관람 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자는 정신건강 자가검진을 실시한다.

검진 결과 우울, 스트레스 등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상담이 이루어지며, 마음건강주치의 사업과 연계해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강연숙 대구시 건강증진과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문가 교육은 실무자 역량강화와 소진 예방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구시는 정신건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교통공사, 전국 21개 기관 중 '최우수' 기관 선정

국토부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철도안전 최우수운영자' 지정서를 받고 현판 제막식을 시행했다.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이 직접 참석해 철도안전 최우수운영자 지정서와 기념패를 수여하고 철도안전에 관한 국내 '최우수' 운영기관이라는 자긍심을 보여주는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철도운영기관이 자발적인 안전 최우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경영진과 현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체계 인식 및 안전활동에 대한 평가로 철도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은 전국 21개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시설관리기관이다.

이번 평가에서 공사는 철도안전사고 및 운행장애 감소로 사고지표 만점을 획득했고, 철도안전 향상을 위한 안전투자 및 우수시책 발굴, 경영진·직원 안전성숙도 면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사는 작년 전 직원 안전인식 패러다임 전환의 해로 삼아 CEO 안전 최우선 경영의지를 반영한 새로운 안전문화운동을 선포했다. 더불어 안전실천결의대회, 안전점검 및 비상대응역량 강화 등 재해 없는 사업장 조성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 단계 도약하는 역동적인 지역 공기업'이 되고자 전사적인 안전의지를 다졌다.

특히 안전 전담조직을 기존 2개 부서에서 3개팀으로 1개팀을 신설해 인력 증원 및 전문인력 배치로 안전조직을 강화하고 업무 전문성을 확보했다.

안전관리통합시스템 구축, 승강장안전문 장애분석 프로그램 개발, 환승역 에스컬레이터 인공지능 CCTV 설치,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자체 수행능력을 보유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에 대한 시설투자와 20년 이상의 안전관리 노하우를 가지고 전 직원이 다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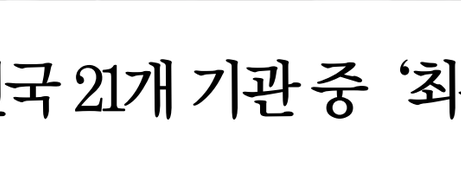
달성군 구지면,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 훈련 실시

오설리 일원에서 민관 합동 재난대처 주민모의 대피훈련

지난 13일 달성군 구지면은 여름철 집중 호우 등에 따른 산사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구 오설리 마을에 대한 주민 대피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오설리 마을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에 따라 2014년도부터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된 구지면 오설리 산17번지와 2022년부터 지정된 산2-3번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구지면은 지난해 여름처럼 장마철 평균 강수량을 넘어서는 양의 비가 내리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날 때를 대비해 산



사태 대비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오설리 마을 주민들을 포함한 구지파출소와 달성군보건소, 구지면적십자가 함께 참여했다.

구지면은 훈련을 통해 주민들에게 대피장소인 오설리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는 동선과 대피 방법을 교육하고 부상자 또는 미대피 주민 발생 등의 상황에 따른 대처 훈련을 진행하며 재난 상황에 따른 주민 대피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조여은 기자

북구청, 부키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 소풍"

25일 삼성창조캠프스 인원에서

북구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행복북구 가족축제 '부키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 소풍"을 오는 25일 삼성창조캠퍼스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함께하는 돌봄 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축제 '부키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소풍"을 25일 11시부터 17시까지 삼성창조캠퍼스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개최한다.

가족사진 공모전 전시, 엄빠대전·버블쇼·물총대전·도전! 가족 골든벨 등 메인무대 행사와 새싹화분 만들기·가족사진관 외 다양한 가족소풍 체험부스 행사를 준비하였으며 자원 순환 및 환경보호를 위한 육아물품 나눔 장터도 마련했다. 행사장 내 부키 캐릭터를 찾아 인증샷을 찍으면 간식꾸러미를 받을 수 있는 깜짝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조미경 기자

달성군, '2024년 주민참여 예산학교'…위원들 주체적 활동 위해

달성군은 지난 17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달성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달성군청 군민소통관에서 달성군과 읍·면의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주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와 우수사례에 대해 교육했다.

군은 이날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3주 동안 총 3회에 걸쳐 읍·면의 주민참여예산위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리더 육성과정' 교육을 실시해 읍·면 위원들을 주체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지원관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6월부터 개최될 읍·면 회의 시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하여 지원단을 파견하여 심도 있는 의제 발굴 및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조여은 기자

군위군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위촉

군위군은 지난 16일 군위군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해 당연직 5명과 감정평가사, 건축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 6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박재성 기자

중구보건소, 청년 자살예방 캠페인 '나의 청춘에게'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년 대상 자살예방 캠페인

중구보건소와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3~5월)를 대비해 청년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과 주변의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상담전화(☎109) 퀴즈, QR코드를 통해 자가검진을 할 수 있는 책갈피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황석선 보건소장은 "청년기는 학업, 진로, 취업, 대인관계 등 다양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자살 예방과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세계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 문경 국군체육부대서 개최

'제27회 문경 세계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가 오는 31일 국군체육부대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띤 경쟁에 들어간다.

'세계 속의 태권도, 평화와 우정의 축제'라는 주제로 6월 1일부터 3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는 세계 20여 개국 국가대표급 군인 선수단이 참여한다.

문경시민운동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식전행사로 전통무예 시범, 군악대 공연 등이 선보인다.

국기원 태권도 시범, 특전사 고공강하, 2군단 태권도 시범,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국방부 3군 의장대 시범 등 풍성한 볼거리가 마련된다.

국군체육부대 내에서는 KFN 위문열차 공연으로 대회 열기를 끌어올린다.

경북, '2024찾아가는 농촌돌봄서비스' 개최

사회적 농업실천 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돌봄 공동체 참여

'2024 찾아가는 농촌돌봄서비스'가 지난 17일 농촌돌봄농장과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와 함께 안동영명학교 재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경북도 농촌돌봄 거점농장인 경산시 힐링공유팜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도내 농촌돌봄농장과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가 참여했다.

참여 농장과 공동체는 영명학교 학생들에게 각 농장의 체험행사를 소개하고, 테라리움·딸기청·액자 만들기 등을 운영해 농촌 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참가한 농촌돌봄농장은 포항시 꿈바라기, 구미시 행복한정원, 안동시 온더뜰, 영주시 발효체험학교 띄움, 베리벨벳, 새오름, 영천시 별빛농부, 경산시 바람햇살농장, 의성군 평평마을 협동조합 등 10개소가 참여했고,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구미시 한우리글로법협동조합이 참여했다.

이관희 안동영명학교장은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농업의 매력을 느끼고 정서적 발달과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농촌돌봄서비스 단체와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농업 관련 진로 탐색과 직업 체험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국비 지원사업'을 통해 2020년도부터 매년 2~3개소의'농촌돌봄농장'과'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를 발굴하고 있다.

올해는 12개소(농장 11, 공동체 1)를 발굴, 농촌돌봄농장은 개소당 2억 4000만원,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개소당 3억 1400만원의 총액을 5년 동안 나눠 지원한다.

농촌돌봄농장은 농업과 지역 농촌 환경을 활용해 치유, 돌봄, 교육, 고용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생태학습, 방과 후 수업, 원예 공예 활동, 농업 관련 직업 체험 등으로 지역 사회에 한몫한다.

농촌주민생활공동체는 농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제·사회 서비스를 주민의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사회적 농업은 농촌 고령화와 지역 소멸 문제 해결과 지역 공동체 연대 강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대안이다"며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조직이나 단체가 더욱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 유럽 왜 갔나?

포항 핵심 현안 사업 성공적 추진 벤치마킹

이강덕〈**사진**〉 포항시장이 유럽으로 떠났다.

포항시는 이강덕 시장 등 방문단을 구성, 19~29일까지 미래 신성장사업 육성 및 핵심 현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유럽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방문은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농·수산 등 미래 신성장 산업과 연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사업 선진 국가와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을 방문한다.

방문단은 가장 먼저 덴마크 에너지청을 방문해 북유럽권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청취한다.

지역주민들의 투자로 건설해 운영 중인 미들그룬덴 해상풍력단지를 방문, 덴마크 어업인협회와 우리시 어업인단체와 교류의 시간을 마련하고 해상풍력 조성의 과정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류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 방문도 진행한다.

현재 포항시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CIP/COP 본사를 COP코리아 대표와 동행해 향후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세계 최대 풍력터빈회사인 베스타스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서는 유럽 최대의 수직형 스마트 농장인 덴마크 노르딕 하베스트를 방문해 선진 농업기술을 눈으로 확인한다.

포항시와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 중인 노르웨이 닐슨윌릭슨사 스마트 양식장과 가공공장을 찾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방문단은 정부와 민간주도로 전기차 보급률 세계 1위(23년 기준 83%)로 정책 지원에 힘쓰고 있는 노르웨이도 방문한다.

시는 노르웨이 전기차협회 방문해 현재 국내외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대응과 향후 유럽권 국가의 배터리산업 전망에 대한 동향을 파악, 지역 주력산업으로 성장 중인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시장에 대응하는 전략마련에 나선다.

지난해 포항 국제배터리 컨퍼런스에 참석한 노르웨이 최대 배터리셀기업인 모로우사를 방문, 포항의 배터리산업의 비전을 설명하고 향후 아시아 진출 시 포항을 거점으로 삼아주길 당부하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방문단은 지역필수시설 설립에 대한 주민 수용성에 대한 벤치마킹에도 나선다. 특히 전국대도시시장과 오스트리아에서 함께 만나 매립장, 소각장 등과 같은 기피 시설의 운영과 설립 과정, 주민들과의 관계를 직접 확인한다.

비엔나 중심도시와 인접한 하수처리장, 소각장 등을 방문해 우리 시 접목 방안을 모색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방문은 글로벌 신산업 도시로 발돋음하고 있는 포항이 유럽권 도시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신성장산업의 선진사례를 꼼꼼히 살펴 포항시의 정책과 접목해 세계 속에서 포항의 대내외 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창명 기자

경북농기원, 아이 웃음소리… 복 주머니 전달!

최우선 시책과제 저출생 극복 직장 분위기 조성 적극 앞장

경북농업기술원은 도정 중점시책인 저출생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일과 16일 출생 100일을 맞은 자녀를 둔 직원에게 백돌이 복(福, Voice of Child)주머니를 전달했다.

농업기술원 직원들은 동료 직원 자녀의 출생을 함께 축하하며, 백돌이 복주머니를 제작해 아기 옷, 유아용품, 건강 보조식품, 지역 특산가공품 등 축하 물품을 담아 전달했다.

백돌이 복주머니는 자녀와 부모에게 필요한 물품을 담은 축하 주머니로'아이들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이라는 의미를 담아'福, Voice of Child'라는 문구를 새겼다.

백돌이 복주머니 '1호'축하의 주인공은 유기농업연구소에 근무하는 권오훈 연구사로 늦게 인연을 만나 결혼하고 다복한 가정을 꿈꾸며, 일찍 자녀 계획을 세워 소중한 첫 아이 출생의 기쁨을 얻었다.

'2호'축하의 주인공은 원예경영연구과 이마리나 연구사로 경북도에서 실시한 '젊은 경북, 청춘동아리활동'커플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출생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의미가 더 크다.

행사를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고충에 대해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는 직장 문화 조성의 필요성과 다자녀 출산 장려 정책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구미, 한류와 결합…메타버스 융합산업 선점 나서

한류메타버스전당 조성 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7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한류 메타버스 전당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경상북도·구미시 관계 공무원, 메타버스 관련기관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해 한류 메타버스 전당 조성 기본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용역은 글로벌 팬더스트리 산업을 구미의 강점인 메타버스 산업 인프라와 결합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기획됐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지난해 9월 용역에 착수해 한류 콘텐츠와 한류 팬덤산업의 기술동향과 선진사례, 경상북도와 구미시의 메타버스 산업 관련 여건분석 등을 통해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등 완성도 높은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해왔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지난 2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과 국내·외 한류팬덤·산·학·연 대상으로 정책수요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거쳐 도출된 과업 전반의 결과를 공유하고 최종 의견수렴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은진 기자

배홍연 대구 동구의원 "다자녀 가정 실질적 지원방안 필요"

대구 동구에서 다자녀 가정에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구시 동구의회에 따르면 배홍연(비례대표) 의원이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에서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지역의 재정적 환경이 달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이 조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자녀 1명당 월평균 양육비는 약 140만7000원이 소요된다. 이에 경제적 부담으로 다자녀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북도의회-호치민 인민의회 교류 활화산

양 지역 경제무역 문화관광 상호협력 동반성장 논의…

경북도의회는 19일 배한철 의장 등 국제친선교류단이 친선교류 관계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호치민시 인민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등 국제친선교류단이 친선교류 관계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호치민시 인민의회를 방문했다.

국제친선교류단 일행 방문 일정은 지난 16~21일까지다.

17일 첫날 일정으로 호치민 인민의회의 공식 초청으로 응웬 티 레 인민의회 의장을 예방하고, 양 지역의 경제무역과 문화관광, 농업 분야의 상호협력과 동반성장을 논의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래로 경제, 문화, 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의 폭을 넓혀 왔다.

경북도도 2017년 호치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공동개최하고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경제성장률이 8%를 상회하고 있다.

호치민시를 2030년까지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경제·금융·무역·과학 중심의 동남아시아 경제허브로 개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호치민에서 40km 떨어진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에 민간공항과 군사공항을 겸한 롱탄(Long Thanh) 국제공항을 2026년 개항 목표로 건설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을 건설하는 경북도와 비슷한 처지로 향후 경북과 호치민간의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한철 의장 등 국제친선교류단은 베트남의 리 왕조 왕자 2명이 각각 한국의 정선 이씨와 화산 이씨의 시조가 된 인연을 언급, 경북 봉화군에 리 왕조 후손의 유적이 남아 있는 베트남 마을 조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호치민 내 한국 교민 수도 약 8만명에 이르며 호치민 진출 한국 기업 수가 1940여개에 달하여 베트남의 젊고 유능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경북에 본사를 둔 삼성전자 협력사 등의 제조업 진출과 대형 체인 마트를 통한 농산물도 수출하고 있어 양 지역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4~26일까지 호치민 인민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2024년 호치민시 국제 인삼 및 방향족, 약초 축제'에 관심을 표하고, 우리 경북측 업체도 교류 협력의 차원에서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거라고 전달했다.

국제친선교류단을 맞이한 응웬 티 레 호치민 인민의회 의장은 환영의 인사를 표하면서 "경상북도와는 2017년부터 협력관계를 구축, 2021년 호치민시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경북에서 25만개의 마스크를 지원, 큰 감동을 받았다. 호치민시는 한국 교민과 기업들이 많아 호치민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베트남은 평균 연령 32.5세, 평균 출산률도 2.0에 달해 인구가 1억명에 근접하는 등 인적자원이 큰 잠재력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다. 호치민 인민의회와 경북도의회가 경제, 무역, 문화관광, 농수산 분야의 상호협력과 인적교류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자"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여 총선백서 위원장 "윤 · 한, 총선 패배 책임"

"특정인 공격 의도 없어, 공격과 책임 달라"
"한동훈, 당 대표 나와라…나도 마다 안 해"
박상수 "심판이 선수하겠단 것…사임해야"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정훈 의원은 17일 22대 총선 패배를 놓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의 책임이 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에 출연해 "특정인을 공격할 의도는 없다. 하지만 책임은 다르다"며 "(선거 패배) 책임은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에게 있고, 권한이 크면 클수록 책임도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이 본인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총선 다음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도 '책임을 실감한다'고 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바꾸겠다 하신 거 아닌가. 둘 다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격할 의지는 없지만 우리가 왜 졌는지에 대해서는 아플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을 향해 "확실한 흥행카드"라며 "당 대표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나오시라"고 전당대회 출마를 권유하기도 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정말 당을 위해 희생할 의지가 있다면 당 대표에 출마해서 백가쟁명식으로 당의 개혁에 대해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조 의원이 한 전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며 당권 도전을 노리고 있다는 지적에는 "누구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자기의 역할을 마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해당 발언에 일각에서는 조 의원이 총선백서 특별위원장직을 먼저 사임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위원장과 패기 있게 맞서 보겠다 선언하려면,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내려놓고 경쟁해 보자 선언하는 게 맞다"고 적었다.

그는 "조 의원이 총선백서 위원장으로서 전당대회 전 발간될 백서에 유력한 당권 경쟁자인 '한동훈 책임론'을 싣고, 전국 조직위원장들을 만나 한 전 위원장의 책임을 추궁한 뒤 당권 경쟁을 할 테니 한번 붙어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는 최소한 중립적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심판이 선수를 하겠다는 말을 이토록 당당히 하는 게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수를 하려면 심판을 그만두는 게 맞지 않나"라며 "조 의원님, 당 대표 출마를 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하십시오"라고 밝혔다.

총선백서 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회의를 열고 총선 공약을 평가하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6월 중하순께 총선백서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전 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준표, '보수 궤멸 장본인' 한동훈 저격

이준석 "文때 洪주변 포함 1000명 수사 보수궤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연일 거칠게 몰아세우는 이유는 '한 전 위원장이 보수를 궤멸 직전까지 몰고 간 장본인'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홍 시장과 유달리 관계가 좋은 이 대표는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향해 "문재인의 사냥개" "총선 말아먹은 애" "우리를 궤멸시켰다" 는 등 격한 표현으로 저격에 나선 이유를 묻는 말에 "홍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불편하게 생각한 지점 중 하나가 본인이 자유한국당 대표를 할 때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어려울 때였는데 그때 홍 시장이 체감하기로는 본인 주변 인사들, 보수 전반 인사 등 거의 1000명 가까이 저인망식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며 "당시 당대표를 하던 홍 시장으로선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수사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조선제일검'이라고 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우 46가지 혐의로 기소했지만 다 무죄가 났다"며 "이런 것들을 볼 때 조금 과한 수사였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즉 "홍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보수의 본류, 항상 당이 어려울 때도 난 지켜왔다. 그런데 그걸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냐, 그런 부분에서 홍 시장 불편이 아직 이어지는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홍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방어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자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가 없는 국민의힘에 와서 대선을 이긴 성과가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비슷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총선에서 졌다. 그래서 평가가 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칠구, 7개 현안사업 강력 건의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등 지역 현안 꼼꼼히 챙기는데 노력

주민소환제, 주민감사, 주민참여예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제도가 많다. 하지만 내용과 성과는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실질적 주민자치가 가능하도록 회원들과 합심, 중앙정부에 지속적 건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내도록 해야한다.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 한말이다. 그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을 맡고있다. 그는 지난 16일 삼척 쏠비치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8차 정기회를 주재했다.

정기회에서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울산과학기술원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출한 "영월 ~ 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은 폐광 이후 기울어진 강원 남부권의 경제를 견인할 교통인프라 구축을 건의하는 것으로, 교통인프라 구축 여부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다.

강원 남부권은 1960~70년대 탄광산업을 이끌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산업이었다.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성장동력을 상실했다.

때문에 이칠구 협의회장은 "지역마다 대표적인 산업이 있지만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현안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노력,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성용 기자

영천시 주먹구구식 공유재산 관리 성토

영천시의회, 정례간담회 개최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건 논의

영천시의회는 지난 17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시정 현안사항인 금호초 학교복합시설 건립(공모) 추진계획 등 4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2024년 복합화시설 2차 공모사업인 금호초 학교복합화시설 건립(공모) 추진계획과 관련, 지역학생 및 주민이 함께하는 시설로 수영장, 도서관 등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등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되도록 각별히 당부했다.

공유재산 매각 건인 북안면 송포리 시유임야 내 불법건축물과 관련, 영천시의 주먹구구식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성토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 등 조속한 해결촉구 및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로 했다.

영천시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방문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장난감 도서관은 지역사회와 어린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더 다양한 놀이와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계획은 51세에서 70세로 정해진 연령대를 늘려서 더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안건들을 철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한수원, 한국가스공사 · 예금보험공사와 감사업무협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6일 한국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한국가스공사, 예금보험공사와 적극업무 확산, 감사업무 역량 강화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적극업무 제도 및 업무 공유, 감사 관련 정보 교류, 전문 분야 감사인력 지원(교차감사, 감사심의), 내부통제 제도운영 및 개선 등의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반부패·청렴업무 역량 강화, 우수분야 벤치마킹, 감사 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기관 청렴문화를 내재화해 기관 청렴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녹화부터 제압까지'

특이 민원 발생… 모의 훈련
경찰과 비상 대응팀 구성해
민원 공무원 피해예방 최선

경북교육청은 17일 본청 민원실에서 안동경찰서 풍천파출소와 합동으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상황 대비를 위한 모의훈련을 했다.

모의훈련은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 예방과 민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민원 상담을 하러 온 민원인이 상담 도중 상대 공무원에게 폭언과 함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사진설명=경북교육청, '녹화부터 제압까지'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하고있다.
〈사진=경북교육청 제공〉

도 교육청 민원 담당 공무원 9명과 안동경찰서 풍천파출소 경찰관 2명 등이 참여해 진행된 이날 훈련에서는 단계별 행동 매뉴얼 지침에 따라 현장 대처와 112 연계 비상벨 작동, 경찰 출동, 민원 공무원 안전장소 대피, 웨어러블 캠을 활용한 증거 영상 촬영, 경찰에 의한 민원인 제압, 특이민원 발생 상황 보고 등을 중점적으로 훈련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특이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도민과 공무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수요자들에게 친절과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본청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민원에 대한 전략적 대응 특강을 실시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특이민원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김성용 기자

대구교육청, 정신건강 챙긴다

전국 첫 정신건강 관리
체계구축 업무협약체결

대구교육청은 지난 17일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학교(기관) 현업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도교육청 최초로 체결했다.

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에게 정신건강과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대구교육청은 소속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8일 관내 9개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들과 업무협약을 위한 사전 실무 협의회를 가졌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알콜중독 항목 검진 검사 시행 △대구시교육청 현업근로자 마음검진 시스템(내 마음을 알고 심리(싶니)?) QR코드 제작 △거주지 관할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 및 치료연계 등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구시교육청 마음검진 시스템'내 마음을 알고 심리(싶니)?'를 통해 학교(기관) 현업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함께 협력해 나간다.

황태용 기자

대구 남구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구제 대책 논의

대구 지자체 최초
관련 간담회 진행

대구 남구가 대구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19일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 20여명과 조재구 남구청장 등이 전날 남구청 회의실에서 만나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논의했다.

대책위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지자체가 피해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지난 1일 대구에선 30대 여성 A 씨가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쓰고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올 초 불거진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빌라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 피해자였다.

고인은 2019년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주고 다가구주택에 입주했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후 집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고인은 유서에서 "괴롭고 힘들어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다.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며 "난 국민도 사람도 아니냐. 너무 억울하고 비참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특히 그는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하나 없고 난 어느 나라에 사는 건지…"라며 "도와주지 않는 이 나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서민은 죽어야만 하나요."라고 적기도 했다.

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사례는 A 씨가 처음이며, 전국적으론 8번째 희생자로 알려졌다.

조 구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며 "어떤 위로의 말과 공감으로도 아픈 마음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안다"고 말했다.

남구청의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자체 노력과 더불어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생계비(50만원)·이사비(150만원) 등 지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태운 전세 사기 대구 피해자 모임 대표는 "대구 전 자치구를 통틀어 이렇게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남구청 측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 대표는 "(피해자들이) 젊고, 신혼부부가 많고, 아이가 있는 사람도 많다"며 "이들이 세상을 떠나지 않게 남구에서 대책 마련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조미경 기자

이진동 대구고검장 "국민 신뢰 위해 최선"

검찰본연업무 바르고
공정한 법 집행 통해
헌법가치 법질서수호
국민의 인권 보호…

이진동〈사진〉 신임 대구고검장이 취임사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동(56·사법연수원 28기) 신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은 16일 대구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일각에서는 일명 '검수완박'을 다시 추진하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이러한 안팎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검찰 본연의 업무는 '바르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헌법 가치와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검찰이 돼야 하며 수사와 기소 및 법 집행은 반드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 보호는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도 검찰이 지켜내야 할 책무이자 존재의 이유다"며 "친절하고 겸손하며 경청의 자세로 국민을 섬길 줄 아는 검찰,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동 대구고검장은 "대구고검이 바르고 공정한 법 집행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인권의 보루이자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며 지역과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신뢰를 회복할 때 우리의 일터는 즐거움과 보람, 긍지로 가득찰 것이다"고 말했다.

신임 이진동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서울 경동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생화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38회로 법조계에 입문, 1999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 대구지검 제1차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장, 대전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상주서 치안 현장 점검

김철문(왼쪽 다섯번째) 청장이 자율방범대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상주경찰서 제공〉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상주경찰서를 찾아 치안 현장 점검 및 직원과 소통 간담회를 했다.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김 청장은 전날 상주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협업치안을 당부했다.

상주 자율방범연합대는 28개대 512명으로 구성됐으며 공동체 치안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청장은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예산확보에 노력해 온 김진일 자율방범연합대 기획부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김 청장은 "현대의 다양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주민의 협업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과 자율방범대를 중심으로 하는 안심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구구치소 재소자 사망
"타살혐의 없어"…

대구구치소의 남성 재소자가 사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대구구치소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3시45분께 A씨가 창백하고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됐다.

발견 즉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A씨는 심폐소생술 시행 중 상태 악화로 같은 날 오전 4시29분께 사망했다. A씨의 몸에서는 멍 자국, 상처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발견자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은 20일 오전에 예정돼 있다.

경북농협, 농축협 채권관리 실무교육…

경북농협은 올해 경북 농·축협 채권관리 실무교육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채권관리 담당자들의 실무능력 향상과 농·축협 건전 결산을 위한 건전성 제고를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지역 내 내 농·축협 채권관리 책임자·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공동대출 자율협약 제도·현황 △농·축협 자체 채무조정제도 △담보채권관리 방법과 담보별 매각가율 추이를 비롯한 시장환경 분석 등이다.

참석한 농·축협 직원들은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클린뱅크 구현을 위해 연체감축 총력 추진을 다짐했다.

코스피 (−28.38) 2,724.38 | 코스닥 (−15.31) 855.06
엔 화 (+1.22) 870.56 | 유 가 (−0.24) 1,695.09
환 율 (+4.50) 1,355.50 | 금(金) (+1,846.74) 104,742.58
www.dgy.co.kr

대구銀 '시중銀 전환' 인가…대구상의 "전국구" 환영

대구상의, "지역·국가경제 발전 위한 새로운 길 개척 기원"

금융당국 인가에 따라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것에 대구상공회의소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구상공회의소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확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금번 전환 인가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는 첫 사례'이자 '32년 만에 탄생하는 국내 시중은행'이기에 더욱 의미가 값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구은행은 지난 1967년 1호 지방은행으로 설립된 이래 지역기업과 함께 성장해 왔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금융 발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전했다.

대구상의는 "시중은행 전환과 함께 '대구은행'에서 'iM뱅크'로 사명도 바꾸는 만큼 이제 전국구 은행으로써 지역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확정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독과점 비판에서 촉발됐다. 5대 시중은행으로는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질 수 없고, 이 때문에 은행들이 이자장사를 통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본인 이익에만 매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중은행 전환 대구은행, 건전성 우려 크지 않아

안정·실효적 경쟁 촉진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

지방은행이었던 DGB대구은행이 전국에서 영업이 가능한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의 최근 연체율 상승과 관련한 건전성 악화 우려는 크지 않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9차 정례회의를 열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

시중은행이란 전국에서 영업이 가능한 상업은행을 말한다. 대구은행은 이날 금융위 의결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다음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한 금융위와의 일문일답 요지이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는 지난해 7월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통한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영역·규모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단시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은행은 다수의 고객이 분포한 수도권과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강원 등으로 영업을 확장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하고 관계형 금융 등 지방은행의 장점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 시중은행으로 안착을 도모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시중은행 전환시 법령상 규제 측면에서 달라지는 점은.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은 법령상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15%→4% 초과보유 금지)와 '최소 자본금 요건'(250억원→1000억원)에서만 차이가 있다. 대구은행의 주식 100%를 보유한 DGB금융지주의 주주 중 4% 초과보유 비금융주력자는 없다. 그러나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인 만큼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종전 대비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 등은 보다 면밀히 심사했고 외부평가위원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생략없이 모두 진행했다."

-시중은행 전환으로 대구은행에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대구은행 입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현재 대구은행은 수도권, 경상도권에서만 영업 중이며 강원, 충청, 전라, 제주지역은 현재 영업구역이 아니다. 그간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왔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구은행은 수도권 및 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를 신설할 계획으로 해당 지역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 전환으로 거점지역인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대출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이후 수도권 영업을 통해 이익창출능력을 제고하고 이를 지역소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확대함에 따라 대구·경북권에서의 여신 '비중'은 감소할 수 있으나 대구·경북권 여신 '공급규모'는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다."

-최근 대구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자본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전성 악화 우려는 없는가.

"대구은행의 현 자본적립 수준 및 자본확충 계획 등 감안시 건전성 악화 우려는 크지 않아 보인다. 현재 대구은행은 자본적정성 관련 규제비율 대비 충분한 여유자본을 적립하고 있다. 또 시중은행 전환 이후 DGB금융지주 증자를 통해 5년간 7000억원의 자본을 확충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DGB지주는 신종자본증권(4000억원) 및 회사채(2000억원) 발행, 유보이익 등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이후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고려해 자산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 기업여신 자동심사 시스템 등을 통한 본점 통할 기능 강화 등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조미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 · 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연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농촌소멸 대응 청년대책 보완 착수… 신규사업 발굴

농촌 공간서 역량 펼쳐 농촌소멸 등 적극 대응

정부가 농식품분야 개혁을 위한 청년 지원대책 보완에 착수했다.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존사업 개선과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한 논의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한 바 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해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해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해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봤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기술사업화 지원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대책을 보완한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한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 농촌소멸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대구 주택시장, "장기적으로 반등할 것"

황주호, "지난달 월성 PSR 원안위 제출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에 대해 "속도를 엄청 내야 하고, 현재 내고 있다"며 "월성 2·3·4호기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PSR)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고 그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라고 1밝혔다.

황 사장은 지난 16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MOU) 체결 및 다짐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수원은 연내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의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8월 한빛 1·2호기에 이어 10월 한울 1·2호기의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 중이다.

앞서 지난달 한수원은 월성 2·3·4호기 운영 연장을 위한 PSR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이를 포함해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한 PSR는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10건이다.

현행법상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원전을 연장 운영하기 위해서는 허가 만료일 10년 전부터 5년 전까지 PSR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 지난 2022년 12월에 개정돼 2029년 이전에 운전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은 허가 만료일 5년 전부터 2년 전을 보고서 제출 기한으로 정한 이전 법령을 적용 받는다.

월성 2호기는 오는 2026년 11월1일 운영 종료 예정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2027년 12월29일 월성 3호기, 2029년 2월7일 월성 4호기 운영 기간이 만료된다.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할 PSR에는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기기 수명평가, 운영 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등이 담긴다.

절차상 PSR 제출 이후엔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안위에 내야 한다. 아직까진 고리 2·3·4호기에 대한 운영변경허가 신청만이 이루어졌다.

계속운전 허가가 늦어질수록 가동되던 원전을 멈춰야 하는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미 원전 공백은 불가피한 상태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놓친 만큼, 연속성 있는 원전 운전은 물 건너 갔다.

고리 2호기는 지난해 4월8일 운영 허가가 만료돼 이미 가동이 중단됐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운영 개시를 2025년 6월로 목표하고 있다.

고리 3호기도 올해 운영 허가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고리 4호기와 한빛 1호기는 내년, 한빛 2호기가 2026년 만료될 예정이고 한울 1·2호기도 2027년부터 차례로 만료된다. 월성 2·3·4호기도 2026년, 2027년, 2029년 각각 만료될 예정이다.

여기에 공사가 재개된 신한울 3·4호기도 원안위의 건설허가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수원은 신한울 3호기의 경우 2032년 10월, 4호기는 203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준비에 돌입했다. 원안위 건설 허가만 취득하면 곧바로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토사까지 이동해뒀다.

원전 공백이 길어질수록 전력 수급 불안 가능성이 커지기에 한수원은 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키를 쥐고 있는 원안위의 입장은 다르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살펴보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본다.

유 위원장은 "인허가 관련해서 시기를 잡고 하지는 않는다"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기술적인 현안들이 나오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윤용찬 기자

경주시, 경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우수상’

경주시가 경북도에서 주관한 ‘202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및 체납액 징수실적, 세수확충 실적, 세정운영 기반조성 등 4개 분야, 24개 세부 항목을 지표로 지난해 세정업무 전반을 심사했다.

경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평가 항목 전반에 걸쳐 탁월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지방세 징수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철저한 세원관리와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지난 2022년 대비 140억 원이 증가한 4353억 원을 징수해 자주재원 확충에도 크게 기여했다.

경주시,“지속적 도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노력”

최원학 도시개발국장 언론 브리핑
옥산서원 진입로 확장·펌프트랙 성과
역세권 사업 지역발전 신모델 제시

최원학 경주시 도시개발국장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주시가 노력한다고 지난 1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어 그는 소관 분야 지난해 성과와 올 한해 역점사업을 안내했다.

먼저 지난해 성과로 숲머리마을 도시계획도로 및 안강 옥산서원 진입로 확·포장 준공, 황오지하차도 구조개선와 자전거공원(펌프트랙) 완료를 꼽았다.

또 국가공간정보 발전 최우수기관 표창, 2023 을지연습 국무총리 표창 등 9회 수상을 언급했다.

이어 해당분야 별로 주요 사업을 소개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방향을 설명했다.

최 국장은 최근 개통한 황금대교를 비롯해 동국대 유치원에서 동대교까지 이어지는 흥무로 개설, 현곡 상구에서 효현 구간 국도 대체우회도로 등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림지하차도의 구조개선 사업은 토지 보상과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오는 8월까지 공사를 착수해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태풍 힌남노 및 카눈으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은 총 904건 중 812건 완공, 현재 92건이 진행 중이며, 우기 전에 60건을 준공하고 대규모 개선복구사업 7건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올해 안으로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추진하는 남천 및 대곡금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 물론 안강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도 속도를 내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황리단길, 대릉원 등에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문화관광 통합 환승주차장 조성은 현재 보상절차를 완료한 상태로 매장문화재 조사를 마무리하는 오는 10월 착공해 내년 12월 완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건천 화천리 일원에 복합환승센터, 그린에너지시설 등의 내용으로 개발 중인 경주역세권 해오름 플랫폼시티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한수원과 연계한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최원학 도시개발국장은 “자연재해 대비부터 교통 원활, 도로 개설, 도시계획까지 누구나 살고 싶고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박목월 미발표 시 특강 성료

朴 시인 아들 박동규 명예교수
14일 동리목월문학관 강연

경주시가 박목월 시인의 장남이자 현대문학 평론 및 국문학자로 한평생 활동해 온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 초청 특강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주시가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후원한 이번 특강은 지난 14일 동리목월문학관에서 열렸다.

박 명예교수는 이날 박목월 시인 작고 후 46년 만에 공개된 미발표 시 166편을 통해 새롭게 밝혀지는 시인의 숨겨진 문학과 생애에 대해 ‘미발표 시로 다시 읽는 박목월 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강연을 통해 청록파와 서정 시인으로 규정돼 온 목월 선생의 문학세계가 사회 현실을 다룬 작품이나 산문시, 연작시 등을 포함하고 있는 새로 공개된 시들을 통해 박목월 문학의 품이 훨씬 넓었음을 알렸다.

이어 우정권 단국대 교수(박목월유작품발간위원장)는 사랑, 신앙 등 10가지의 주제로 분류해 미 발표 시의 문학적 의미를 설명하고, 미 발표 시가 공개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게 전했다.

이밖에도 오는 28일까지 동리목월문학관에서 ‘슈산보오이’를 비롯한 대표적인 미 발표 시 총 9편의 육필 원본 스캔본 특별 전시도 진행된다.

남경주 파크골프장 9홀 개장… 균형 있는 생활체육 구축

입실 하천부지 인근 9홀 규모 조성
올해 권역별 파크골프장 5곳 운영

남경주 지역에 첫 파크골프장이 들어섰다.

시는 지난 14일 외동읍 입실리 230번지 인근 하천부지에 ‘남경주 파크골프장’을 본격 개장했다. 개장 첫날에는 지역 파크골프클럽 회원 100여 명이 파크골프장을 찾아 축하하며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남경주 파크골프장은 9억 원의 예산을 들여 9735㎡ 면적에 9홀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해 11월 완공 후 이달까지 잔디 생육을 위해 특별 관리를 해 왔다. 그간 파크골프장 2곳은 도심에 편중돼 있어 외곽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다소 떨어졌다.

이에 시는 지난 2022년부터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을 세워 균형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지난해 11월에는 건천에 서경주 파크골프장(9홀)을 개장 했으며, 올 6월에는 충효에 경주2 파크골프장(18홀), 9월에는 양남에 동경주 파크골프장(18홀), 안강에 북경주 파크골프장(9홀)을 각각 개장할 예정이다.

한편 파크골프는 소규모 공간에서 골프의 게임요소를 결합한 생활 스포츠로, 장비와 규칙이 간단해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파크골프는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생활체육으로 각광받는 스포츠이자 성인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내 시민 누구나 균형 있게 생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중장년 정신건강사업 65명 대상‘마인드 팔레트’ 운영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에서 사업체 소속 근로자 65명을 대상으로 ‘마인드 팔레트’ 캠페인을 실시했다.

‘마인드 팔레트’ 캠페인은 중장년 정신건강사업으로 생물학적 노화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에게 올바른 정신건강 정보 제공과 정서적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이다.

캠페인은 △마인드 디자인(정신건강검진, 캠페인, 온라인 이벤트) △마인드 스케치(정신건강 교육, 상담) △마인드 페인팅(정신건강 프로그램, 고위험군 사후관리)으로 구성된다. ‘마인드 팔레트’ 캠페인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경주시, ‘농업대학 단기과정’ 교육생 모집

농업경영마케팅 30명, 토양 30명
오는 24일까지 선착순 모집

경주시가 농업인 교육수요 및 수준별 교육진행으로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경주농업대학 단기반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농업경영마케팅 30명, 토양 30명으로 60명이다.

응시원서는 경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오는 24일까지 선착순으로 메일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서만 받는다.

교육은 SNS 활용방안 및 마케팅전략, 작물생육 및 토양환경 등 농업인들의 경영 마케팅 능력 향상과 품목에 따른 맞춤식 교육으로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경주시 농업진흥과 교육훈련팀(054-779-86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용찬 기자/사진제공 경주시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울진

경북 광역푸드뱅크, 취약계층에 간장 기부

홍영의 간장으로 잘 알려진 ㈜더동쪽바다가는길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4월 경상북도 광역푸드뱅크에 홍게간장 300만 원어치를 기부했다.

영덕군 로하스수산식품특화농공단지의 1호 입주기업인 ㈜더동쪽바다가는길은 붉은대게백간장과 육수 등을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우수·혁신 중소기업에 수여하는 브랜드K에 선정되는 등 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상품화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백영복 해양수산과장은 "더동쪽바다가는길이 더욱 발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기업이 다시 이를 사회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양군 체육회, 16일 지역사랑 기부활동

영양군 체육회는 지난 16일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영양분관을 찾아 저소득장애인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을 위해 영양산나물축제에서 퍼팅의 달인을 모시는 체험비로 모은 21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기부했다.

매년 영양군 체육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이나 기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눔 활동을 펼치며, 군민의 건강한 체력, 건강한 마음,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은영 관장은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며,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협력해 줄것'을 부탁했다.

'청도군이장연합회 한마당대회'17일 개최

청도군이장연합회가 주관하는 제14회 이장연합회 한마당대회가 17일 청도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마당대회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와 책임 정신으로 군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온 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단결하는 어울림의 행사로 진행됐다.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한 이장들은 화합행사와 유공자 표창을 통해 청도군의 발전과 이장연합회원간의 단결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영덕군수, 정부 부처 방문해 국비 확보 총력

지역 핵심사업 신속 추진 재원확보에 총력전 펼쳐

김광열 영덕군수가 정부 부처 방문,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군수와 주요 간부들은 지난 16일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 부처를 차례로 방문했다.

김 군수 일행은 중앙부처의 사업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재난관리정책국장 등 주요 관계자와도 면담을 진행해 지역 현안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국가정책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방문에서 영덕군이 요청한 주요 사안은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사업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분류식화 사업 △강구(구)교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비 증액 등이다.

김광열 영덕군수와 주요 간부들이 행안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과 면담하고 있다.

군은 해당 사안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관련 부처와 주요 부처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군수 일행은 영덕군 출신의 중앙부처 공무원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군은 국가 예산 확보와 투자유치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세종시에 사무소를 열어 중앙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세종시 방문에 대해 "지자체마다 국비 예산 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지역의 미래 발전과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청정울릉 상가밀집 골목 일제정비

지속적 상가밀집 골목 일제정비…

울릉군이 청정울릉 만들기 상가밀집 골목 일제정비에 나섰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광수요 및 개발여건에 맞춰 다시 오고 싶고, 살고 싶은'울릉도 첫인상' 만들기를 위해서다.

군은 스스로 변화하자는 강한의지를 담아 깨끗하고 청정한 골목거리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한다.

일제정비는 관·경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도동·저동 일대의 항만, 소규모 공원지역과 상가 골목들의 노상적치물 및 도로 통행에 방해되는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인식개선을 유도, 불이행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한다.

군은 매월 15일을'상가밀집 골목 일제정비의 날'로 지정, 일시적 인식개선 계도활동이 아닌 도시미관의 정비가 자리매김할 때까지 구역별 전담부서에서 단속을 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어느 지역을 방문하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첫인상과 향기였다. 지속적인 상가밀집 골목의 일제정비를 통해 방문객에게는 깨끗하고 청정한 울릉도의 얼굴을, 상가 주민들은 불법적인 요소가 정당행위가 될 수 없음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울진군, 2023 실적 경북도 시·군평가 도약상 수상

전국 최우수 목표 업무 질 높여 군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

울진군이 '2023 실적 경북도 시군평가 시상식'에서 실적향상 최우수 시군에 수여하는 도약상을 수상했다.

경북도 시군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 평가 89개 지표와 도정 역점시책 11개 지표의 합산 실적으로 구성된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다.

군은 민선8기 역점 시책분야인 친환경, 투자유치, 일자리 추진 실적과 더불어 보건, 건축·지적 등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 지난 몇 년간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울진군은 그간 성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평가에 대한 관심도 저조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평가에 시군평가 연계지표를 전년 대비 50% 확대, 평가 기여도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규모를 넓혀 동기부여를 강화했다.

앞으로 군은 2024년 실적 시군평가에서 조금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 전 공직자의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정성평가 실적 개선을 위해, 군정 전반에 숨어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한 담당자 및 제안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전 부서의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인다. 이정수 기자

청도군, 농경지와 산림연접지 등 돌발해충 정밀 예찰 선제적 대응!

청도군이 관내 농경지와 산림연접지 등 우심지역 위주로 돌발해충 약충기 정밀 예찰을 했다.

최근 기후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돌발해충 증가 및 피해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봄철 기온이 전년보다 높아 전체적으로 부화시기가 평년보다 2~3일 정도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청도군의 경우 5월 중순경 부화가 될 것으로 예측, 지속적인 정밀 예찰과 더불어 돌발해충 공동방제 기간(5월29 ~ 6월5일)을 지정, 농업기술센터, 산림부서, 민간이 공동 협업방제를 추진한다.

향후 예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시 운영 중인 병해충 예찰·방제단과 발생 농가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 돌발해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농가에 돌발해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울진군, '제7회 울진군-보령시 미술교류전' 17일부터 개최

울진군은 17일부터 동·서 화합과 지역문화예술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제7회 울진군 - 보령시 미술 교류전'이 열린다.

2018년부터 시작, 올해 7회차가 된 울진군 - 보령시 미술교류전은 (사)한국미술협회 울진지부와 보령지부가 주축이다.

두 도시의 대표적인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교류 전시하는 행사로 지역 예술인의 저변확대와 관내 주민들에게 다양한 미술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시회는 17~25일까지 연호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열린다. 울진군 작가 26명, 보령시 작가 37명이 참가, 각 지역 작가들의 열의와 정성이 담긴 서예, 서양화, 한국화, 조소, 민화,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미술작품 60여점이 전시된.

보령교류전시는 오는 31~6월 6일까지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된다.

장경희 문화관광과장은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과 대한민국의 숨 울진의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하고, 친선과 교류의 장이 더욱 활기차게 이루어져 지역경제와 문화예술 상생 발전의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영양군, 사랑나눔 행복바자회 성공

따뜻한 정 나눔 문화 계속 확산 행정 모아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산나물 축제 기간 사랑나눔 행복바자회를 개최, 바자회를 통한 판매수익금을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

행사는 군협의체에서 의류, 주방용품, 액세서리나 장난감, 다육식물 등을 기부 받아 축제 동안 1000원에서 2만 원에 판매, 588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수익금 전액을 위기가정의 긴급생계비, 의료비, 화재복구비, 특화사업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기금으로 사용한다.

바자회를 찾은 어린이 김모양은 "바자회에서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을 싸게 구매했다"라며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해 나누는 기쁨을 느끼고,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도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바자회를 위해 물품을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따뜻한 정과 나눔의 문화가 계속해서 확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제3회 전국 청송정원 동요제 개최

푸르름 가득한 청송정원 찾아준 모든분들께 아름다운 추억 선사

'제3회 전국 청송정원 동요제'가 18일 산소카페 청송정원에서 열렸다.

올해 3회를 맞는 동요제는 (사)한국합창총연합회 경북도지회 주최·주관으로 '그림 같은 풍경 있는 동요제'라는 주제로 산소카페 청송정원을 무대로 펼쳐진다. 전국에서 독창 80여 명, 중창 10여 팀이 참가해 저마다 갈고 닦은 실력을 펼쳐 보였다.

청송의 새로운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산소카페 청송정원은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백일홍 정원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는 주요 관광지다.

지난해 봄 청보리 물결이 장관을 이루었다면 올해는 5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우아한 꽃양귀비의 붉은 물결을 만끽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가족 모두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푸르름 가득한 청송정원이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박현국 봉화군수는 20일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2024년 봉화군 평생교육협의회 개최'에 참석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20일 오전 고령군청 우륵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당면업무 추진에 철저를 당부한다.

한번 맛보면 잊지못하는 개진감자 사이소~

개진감자 직판장이 지난 18일 문을 열었다

개진감자 영농조합법인은 개진감자 직판장(개경포로 1250)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 지정, gap인증 등 우수한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개진감자는 올해 재배면적이 146ha(하우스감자 23ha, 노지감자 107ha)이며, 품종은 설봉·추백·수미이다.

또한 다양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추어 10kg, 20kg 단위로 포장 판매하고있다.

개진감자 직판장(☎054-954-0222)은 5월 18일을 시작으로 하우스는 5월말까지, 노지감자는 6월중으로 판매 예정이다.

박장하 개진면장은 "개진감자는 낙동강 사질토양에서 재배되어 비타민이 많고 영양가가 높다"라며 "한번 맛보면 잊지 못할 정도로 맛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영주시보건소, 흡연예방 교육에 '재미'를 더해

영주시는 '함께하는 도전! 금연골든벨'을 개그맨 이수한씨가 진행을 맡아 즐거움을 더했다.

영주시보건소는 지난 17일 경북항공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전교생 300명을 대상으로금연다짐 토크쇼와 '함께하는 도전! 금연골든벨'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금연 다짐 나무 토크쇼 △금연 OX퀴즈 △패자부활전 스피드퀴즈 △중간 레크레이션 게임 △메인 프로그램인 도전~! 금연골든벨 △최후의 1인 선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개그맨 이수한(SBS 9기 공채) 씨가 진행을 맡아 재미와 교육,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재치 있는 진행으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다양한 선물을 통해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전상기 기자

2024 고령 대가야축제 평가보고회 개최…

주민이 직접 참여해 즐거운 축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축제

'2024 고령 대가야축제 만족도가 역대 최고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6일 '2024 고령 대가야축제 평가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3월 29일부터 3월 31일(3일간)까지 진행됐던 2024 고령 대가야축제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다.

이남철 군수를 비롯한 김명국 고령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김용현 관광협의회장 및 각 실과소장, 읍면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축제에 대한 최종 평가와 개선점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2024 고령 대가야축제'는'주민이 즐거운 축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라는 방향 아래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축제로 구성됐다.

특히 지산동 고분군을 축제장으로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관광객들에게 신선함과 즐거움을 선물했다.

이는 지금까지 개최된 고령 대가야축제의 만족도 평가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로 이어졌다.

축제 주제와 부합된 핵심 프로그램인 주제관 '세계 속의 대가야'는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에 등재되기까지의 추진 과정, 대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알기 쉽고 재미있게 소개했다.

축제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진행되었으며,'고밤마실'이라는 테마를 통해 다채롭게 연출된 야간경관과 다양한 야간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해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잡았다.

그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야간경관·대가야별빛쇼 등 야간프로그램에서 관객들의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김용현 고령군관광협의회장은 "3일간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방문했다.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찾았지만 큰 안전사고 없이 즐겁게 즐기고 가신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축제가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의 희생에 가까운 노력이 있었기 때문 "이었으며 "앞으로도 안전과 바가지요금 근절 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역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하고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축제가 되도록 면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당부했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대가야축제가 성공한 축제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는 고령군관광협의회와 유관기관,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모두의 관심과 희생, 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축제는 그동안 마련한 문화·관광 인프라 및 요즘 관광 트렌드에 맞추어 변화된 축제 개최 시도 등이 시너지 효과를 이룬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에 더 새롭고 더 알찬 대가야축제가 되길 바라며, 내년에도 여기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며, 살아있는 고령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성주참외 품평회 역대 대상 명품참외 전시

성주군은 2024년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행사 중 '성주참외 명예의 전당'역대 대상농가 12점의 명품참외를 전시하고 개막식을 개최했다.

'성주참외 명예의 전당'은 참외 조수익 6천억 달성을 기념해 매년 축제기간 12회에 걸쳐 진행된 참외품평회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3800여명의 성주 참외 재배농가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향후 13회를 맞이할 성주참외 품평회의 전환점 마련과 우수 농가의 참가 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축제 기간 동안 품평회 역대 대상자 총 12점의 참외 전시와 함께 참외공원 및 참외터널을 활용한 다양한 포토존과 축제 관람객에게 볼거리와 지역민에게 자랑거리를 제공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개회사에서 "성주참외 명예의 전당을 통해 세계 최고 품질 성주참외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보다 더욱 발전해나가는 성주참외 홍보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재훈 기자

'2024 마스터즈 사이클 영주투어' 18일 열려

18일, 봄의 끝자락에 영주댐을 배경으로 일주도로를 달리는 '2024 마스터즈 사이클 영주투어'가 개최됐다.

(사)대한자전거연맹에서 주최·주관하고 영주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주경찰서, 영주호오토캠핑장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대한자전거연맹에 정식으로 등록이 된 전국 2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이번 마스터즈사이클 영주투어는 총 84.2km 주행(7주회 정도)하는 S리그로 오전 9시 영주호오토캠핑장을 출발해 금광삼거리, 동호이주단지 입구, 동호교 앞, 동막교 앞, 송리삼거리, 강동마루공원 앞을 순환하는 코스로 진행됐다.

영주시와 시 체육회는 대회 도중 자전거와 순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자전거 흐름에 따라 진입을 부분 허용해 차량 통행불편을 해소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사 전 도로변 풀베기 작업, 노면 청소 등 선수들이 영주에서 최고의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마스터즈 사이클 영주투어를 통해 영주시의 우수한 자전거 인프라를 널리 알려 국내 대표 자전거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의성군, 2차 농산물 온라인판매 신청 접수

홈쇼핑 방송 경비 50%지원 총 2억, 횟수당 100만원 지원

의성군은 2024년도 2차 농산물 온라인판매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산물 온라인 판매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가로 편성했으며 TV홈쇼핑 방송에 필요한 직접경비(판매수수료)의 50%의 금액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총 2억원이며 방송 횟수 당 최대 1600만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성군 내 주소를 둔 농산물유통 관련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단위 주문을 감안해 물량 소화가 가능하고 품질이 뛰어난 업체 위주로 선발할 계획이다.

의성군의 주요 온라인판매 품목으로는 복숭아, 마늘, 자두, 사과 등이 있다.

2023년에는 서리피해 및 태풍 등 악조건 속에서도 38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매출실적 45% 초과 달성했다. 올해도 군은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해 온라인판매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 "온라인 판매 지원사업을 통해 의성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봉화군 학생우호교류단 중국 동천시 방문

봉화군-동천시 고등학생 교류 활발한 교류 5년 만에 재개

봉화 국제학생우호교류단(고등학생)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6일 간의 일정으로 국제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섬서성의 동천시를 방문했다.

봉화군과 동천시는 1997년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던 고등학생 교류를 5년 만에 재개하게 됐다.

이번 국제학생우호교류단은 봉화고등학교 학생 20명, 교사 3명, 대표단 3명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동천시 제1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수업 및 동아리 활동 참관, 문화체육 교류, 문화유적 탐방 등을 통해 양국의 문화를 상호 이해했다.

특히 1대1 결연을 통해 학생 상호 간의 우의를 튼실히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국제학생우호교류단의 동천시 방문은 5년 만에 재개된 고등학생 교류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학생 상호 간의 우의를 다져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제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학생들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봉화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상기 기자

'영주 아이! 신나 페스티벌 명랑골든벨'…가족과 함께 한 '축제의 장'

7월 물놀이, 9월 만화주제가 경연, 11월 가족 윷놀이 이어져

영주시는 지난 18일 서천둔치 강바람놀이터에서 '2024 영주 아이! 신나 페스티벌'의 첫 번째 봄 행사 '명랑골든벨'을 성황리에 마쳤다.

명랑골든벨은 초·중학생과 학부모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이·어른 모두 즐거운 가족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영광중학교 댄스동아리 '아라리'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식선언 △환영사 및 축사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각각 참여하는 명랑골든벨 △음악·영상 퀴즈·가위바위보·비행기 날리기 등 명랑레크리에이션 △마술공연 △경품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로는 △캐릭터 부채 만들기 △힐리와 함께 사진찍기 △인생세컷 및 포토존 운영 △쫀드기 및 팝콘 증정 등이 함께 진행됐다.

이와 함께 영주시 자원봉사센터는 △페이스페인팅 체험 △네일아트 △쓰레기섬!분리수거 대작전 △뱃지 만들기를, 영주시 가족센터는 △가정의 달 안부전하기 캠페인 △다양한 나라 전통놀이체험을, 새로일하기센터와 소백가정상담센터는 △도형으로 진로탐색하기 △룰렛 돌리기 △두근두근 뽑기 이벤트를 운영하며 가족들의 봄나들이에 즐거움을 더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초등생 이 모군(5학년)은 "골든벨 문제가 너무 어렵지 않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즐겁게 풀었고, 명랑운동회에서 신나게 비행기도 날리고 마술공연도 관람해 재밌었다"며 환하게 웃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는 가족 축제를 시민들의 휴식 공간 서천의 강바람놀이터에서 개최하여 영주가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임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계절 테마가 있는 아이! 신나 페스티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1회씩 진행되는 가족 축제로 7월에는 물놀이, 9월에는 만화주제가 경연대회, 11월에는 가족 윷놀이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전상기 기자

용궁면 행정복지센터, 농촌일손돕기 추진

예천군 용궁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관내 농촌지역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용궁면 월오리의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 돕기를 했다.

일손 돕기에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홍보소통과, 환경관리과, 남예천농협 용궁지점 등 직원 약 30여 명이 참여했다.

직원들은 복숭아 적과 작업을 통해 과수 농가의 현실을 몸소 체험하며 농업의 소중함과 가치를 배웠다. 월오리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주는 "한창 적과를 해야 하는 시기에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힘들었는데 직원분들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워했다.

예천군, 어르신 孝 한마당 큰잔치

예천군은 지난 17일 오후 문화회관에서 효 문화 확산과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어르신 효(孝) 한마당 잔치' 열었다. 예천군이 주최하고 경북어르신복지예술단(단장 이창희)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학동 예천군수와 최병욱 예천군의회의장, 이태현 대한노인회지회장, 기관 단체장, 어르신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안동MBC 이희준 리포터가 재치 있는 입담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개회식, 초대 가수 공연, 색소폰 연주, 민요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장수 어르신 2명에게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청려장 지팡이를 전달, 효 편지 낭독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학동 군수는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의 버팀목이 되고, 피땀 흘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궈내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명주 기자

상주시, 장애인 윤택한 삶 살 수 있도록 앞장

2024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개강 새로운 세계

상주시가 지난 7일부터 2024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을 순차적으로 개강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교육부가 지역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시는 2년 연속 선정, 올해 국비 70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8개의 장애인 시설 및 단체와 협력, 다양한 사업을 운영한다.

개강한 사업의 주요 내용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요리교실인 '장애인 드림업 프로그램△척수장애인을 위한 음악통합 치료 활용 시낭송 힐링공연 프로젝트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풍선아트, 바리스타 △장애인 직업능력향상 교육을 위한 세상을 다(多) 잡(job)아라△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예 전문교육으로 직업능력을 키우는 '반려 식물관리 마스터과정'과 체계적 음악교육 프로그램 '꿈꾸는 음악대장간', 농인과 청인이 글과 그림으로 통하는 예술교실인 '한줄 그림여행'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2일부터 '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강사 워크숍'을 한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주산학습 프로그램'과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주의 역사문화 이해교육 '통(通) 통(通) 상주 문화속으로'를 개강한다.

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통해 상주시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장애인에게 평생학습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10월에 열리는 평생학습 축제에서 다양한 성과를 전시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계기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포용하고, 시민 모두에게 열린 학습기회를 제공, 장애인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노래 부르고 스트레스 날리세요!

칠곡문화도시' 주민참여 프로그램 칠곡in가요…

칠곡문화관광재단이 마련한 주민참여형 노래교실인 '칠곡in가요' 1회차 프로그램이 지난 14일 향사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문화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이 함께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다.

이날 개그맨 겸 가수 김재롱을 비롯하여 미스 터트롯 출신 최대성, 보이스퀸 우승자 정수연이 출연하여 노래를 통해 주민들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뜨거운 자리가 됐다.

칠곡in가요는 지난 4일을 시작으로 총 6회 진행된다.

매 회차마다 초대가수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배우며, 즐기는 유익한 무대를 선보인다.

단순한 공연에서 벗어나 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군은 법정문화도시 선정으로 2023년부터 문화도시사업을 진행중이며, 특히 올해는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도시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

손영실 칠곡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고 많은 주민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리며 일상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도 이런 주민참여 컨텐츠를 통해 삶이 풍요로운 문화도시 칠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경산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13억9300만원 삭감

임시회 폐회 9건 안건 원안가결 각종 정책 추진 최선 다해 달라

경산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3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 동의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4건 등 총 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됐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됐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092억원 대비 811억원(6.2%) 증가한 1조 3,903억원으로 제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토대로 일반회계 세출 분야 9건, 13억9300만원을 삭감했다.

예산은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추경예산과 안건처리를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편성된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미경 기자

'2024 안동 길거리 과학마당' 개최

상상해! 즐겨봐! 느껴봐! 과학 체험 즐거운 시간

'2024 안동 길거리 과학마당'이 5월 18,19일 이틀간 웅부공원에서 열렸다.

가족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 축제다.

행사는 '상상해! 즐겨봐! 느껴봐!'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과학을 체험하고,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했다.

과학탐구 체험마당, 이동과학교실 2개의 테마로 진행됐다.

과학 체험마당은 △큐브의 변신은 무죄 △피타고라스 플롯 △점핑 코일 만들기 등 과학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24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어렵게만 느끼던 과학 실험 주제들을 일상생활 속 경험과 연결해 어린이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과학 교사의 알기 쉬운 설명으로 과학의 기본 원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이동과학교실은 첨단과학실험 장비를 갖춘 이동과학차와 전문인력으로, 생활 속의 과학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엮어낸 과학 실험쇼, VR 체험, 과학체험관이 운영된다.

안동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과학마당을 통해 미래의 과학 꿈나무들이 어려서부터 과학을 접하며 꿈을 키울 기회를 얻기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온 가족과 함께하는 과학 체험으로 즐거운 시간이 됐다"라고 전했다. 송명주 기자

저출생 극복… 미혼남녀 in 카페 현장간담회

청춘남녀 상시 동아리 등 만남의 장 확대 의견수렴

권기창 안동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안동시 미혼남녀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함께 미혼남녀 in 카페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는 지난 4월 실시된 미혼남녀 프로그램 참가자 중 희망자를 모집, 만남과 결혼, 주거지원 등 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논의된 내용은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만남의 기회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안동시도 미혼남녀가 자연스러운 만남의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저출생 극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개최해 왔다.

올해 1차 만남 프로그램에는 30명 모집에 110여 명의 인원이 신청,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진행 결과 약 40%의 매칭율을 나타내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미혼남녀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만남 프로그램을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해 시행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임산부와 함께한 「안동맘 in 카페」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시민을 만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안동시 인구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송명주 기자

본사 인사

편집국/지방부

- 부장 송 명 주(안동·예천담당)
- 안 명 욱(예천담당) 의원면직

5월 18일자

Opinion

신문 맛이 달라지면 신문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구광역일보는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일보
www.dgy.co.kr
등록번호(일간) 대구가 00016
dgynews@daum.net

대표 (053) 253-0000
FAX (053) 253-0041
대구시 중구 태평로286(2층)

발행인 김 영 숙
편집인 김 성 용
부사장 조 여 은
편집국장 김 현 석

지역번호 053
대 표 257-0000
부사장 254-0400
편집국장 257-0200
경영지원국 267-5000
광고국 267-0800
사회부 253-0060
정경부 253-0061
문체부 253-0065
지방부 253-0064
편집부 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칼럼

미국 대선과 한국의 안보·외교 과제

김 태 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핵안보연구실장

1991년 이전의 냉전과 현 신냉전 사이에는 다양한 차이점이 있다.

그때는 '철의 장막'과 '죽의 장막'에 의해 단절된 상태에서 동·서가 대치했지만, 오늘날엔 상대편 주전 선수가 소련에서 중국으로 바뀐 상태에서 경제·기술·문화적 교류와 대결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 패권의 쇠락, 핵거버넌스의 혼란과 핵전쟁 가능성의 가시화, 분쟁 해결사 역할을 해온 유엔 안보리의 무력화, '북·중·러 북방삼각'의 군사적 밀착, 북한 핵무력의 고도화 등도 신냉전의 특징이다.

이 모두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종합하건대, 지금 한국은 6·25 전야 이래 최악의 안보 환경에 노출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잊을 만하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해 한국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우리도 힘든데 왜 다른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고 돈을 써야 하냐"고 외치는 중산층이 신고립주의를 견인한다.

신고립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미국의 세계경찰 역할을 축소·포기시킴으로써 북방삼각의 오판을 초래해 한국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을 구하기 위해 뉴욕과 워싱턴을 위험에 빠뜨리진 않을 것"이라는 가설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다.

북한은 '한미동맹·핵우산 해체'를 끌어내기 위해 더욱 험악한 '벼랑 끝 핵게임'으로 미국 국민을 겁박하려 들 것이다.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자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지만, 신고립주의자들이 외치는 이런 주장은 1950년 '애치슨 선언'처럼 '한국 포기론'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한국에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악몽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내 신고립주의 발흥을 경계하면서 그것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충격파를 예방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첫째, 미국의 신고립주의는 정당이나 후보에 따라 상대적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추세다.

한국은 누가 또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그 대통령과 정부를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장단기 동맹외교 전략을 예비해야 한다.

특정 후보를 맹신하면서 반대편 후보를 백안시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금물이다. 둘째, 북핵 대응과 관련해서 '동맹을 포기해야 하는 핵무장'보다 핵무장을 보류하더라도 강건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기본을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과제는 미국의 신고립주의가 '황당한 상황'이나 '치명적 상황'을 촉발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북핵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음에도 미 핵우산이 보일 듯 말 듯한 존재로 남는다면 한국에는 '황당한 상황'이다.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동맹 무력화나 핵우산 소멸을 믿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치명적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 전술핵 재배치 등 신고립주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준의 확장억제력을 현시해야 한다.

아니면 한국 스스로가 '비핵국이지만 위급시 단시간 내 핵보유가 가능한 나라'로 변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업적 이익의 극대화만 추구하는 비정함을 무한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 70여 년 혈맹국과의 협상에 적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동시에 한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4% 수준으로 올리는 결단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더 많이 부응함으로써 워싱턴의 신고립주의적 대한(大韓) 정책을 불식시키는 처방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및 대만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3개국에 속하는 한국이 스스로 택해야 하는 자강(自彊)의 길이기도 하다.

■ 나의제언

공동주택 화재 대피요령 개정 홍보

예천소방서 김도연

최근 소방청에서 공동주택 화재 대피요령을 개정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꾸준히 50~70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부상자를 포함하면 평균 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적은 피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상자의 사고 직전 상황은 기타와 미상을 제외하고는 연기(화염)으로 인해 피난이 불가능한 상황이 가장 많다.

또한 화재 사상 시 행동은 피난 중인 상황이 41%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을 보았을 때 공동주택 화재 시 어떻게 피난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동주택은 거주 인원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을 것 같으나, 2020년 기준 일반가구 중 52%가 공동주택에 살고, 33%는 일반주택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화재 사망자는 109명, 공동주택 화재 사망자는 74명으로 단독주택 화재 사망자가 공동주택 화재 사망자보다 47% 이상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공동주택은 내화구조에 방화구획이 되어있으며,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발화층 외 다수층으로 연소확대되는 경우는 1.8%로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화재 시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살펴서 대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의 발생위치 및 화염·연기 확산 여부 등을 고려해 대피가 가능할 경우 대피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기 또는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즉, 화염·연기 영향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 연소 확대 특성상 대부분의 화재가 발화층 이내로 국한됨에 따라 무리하게 피난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대기를 하는 것이 올바른 피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피난을 위해 여러 가지 변수와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수립하기가 필요하다.

사전에 대피경로를 작성해보고, 소방 및 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하는 등 피난 계획을 수립해 본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정확하게 대피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주택 화재 시 무리한 대피로 인해 불필요한 연기흡입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나면 살펴서 대피'라는 슬로건을 기억하고, 사전에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

오늘의 정치 논평

도 넘은 대구시의 언론탄압, 어디까지 갈지 두렵기까지 하다.

대구시 공무원이 물리력을 동원해 기자의 취재를 방해하다가 상해를 입히고 카메라를 파손하는 등 폭행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상황은 지난 9일 대구컨벤션뷰로 해산 총회 현장,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회의가 끝나고 회의장 문이 열린 후였다.

폭행 의혹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현장이 물리적 대치로 어수선해서 서로 예민해진 것은 있었지만, 폭행은 말도 안 된다"면서 "사진을 지워달라, 싫다하는 과정에서 그 분이 갑자기 뒤로 누우셨던 일은 있었다. 하지만 폭행이라니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히 우리가 어떻게 기자를 폭행을 하겠나.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얼핏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 하다.

대구시가 지금까지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그랬기 때문일 것이다.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홍시장과 대구시는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고 탄압해왔다.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와 법적다툼, 연합뉴스에 대한 구독중단, 오마이뉴스에 대한 취재거부와 광고중단 등 자기 입맛에 맞지 않거나 대구시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에 대한 탄압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던 대구시가 언론관도 민주주의도 독재시절로 회귀하려는 것 아닌지 씁쓸하다. 아니, 어디까지 갈지 두렵기 까지 하다.

대구시는 도를 넘은 폭주행정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위임한 것은 이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대구시는 시민과 언론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대구시는 폭행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과와 함께 관계자들을 징계하라. 또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대구시당

홍준표 시장 사건 수사 결과 유감, 남은 사건 신속히 수사해야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시장을 고발한 사건 중 일부는 수사 결과가 나왔고, 일부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수사 결과가 나온 사건은 그 처분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은 더디고 미온적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며 입장을 밝힌다.

1. 대구시 유튜브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대구경찰청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부 영상물이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였다고 판단, 부정선거운동죄로 송치하였으나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공모 혐의가 없다면서 불송치하였다.

2.'대구로' 관련 홍준표 시장의 절차 위반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구지방검찰청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대구시페이로 변경하면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실물카드 사용을 제한하여 시민의 불이익을 초래한 책임은 여전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3.홍준표 시장이 퀴어축제 시 집회를 방해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구지방검찰청이 9개월째 수사 중이다. 한편, 대구참여연대의 고발과 거의 동시에 퀴어축제조직위원회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는 오는 5.24 법원의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사건 내막이 매우 복잡한 것도 아닌데 상호 간 다툼이 치열한 소송보다 수사가 더 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구 검찰청은 지금이라도 이 사건 신속히 처분하라. 대구참여연대

Sports 스포츠·건강 Health

100세 운동법

건강한 달리기, 시작은 '내 발 파악하기'

가장 친숙한 운동이나 '무작정 달리기'는 외려 해

달리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친숙한 운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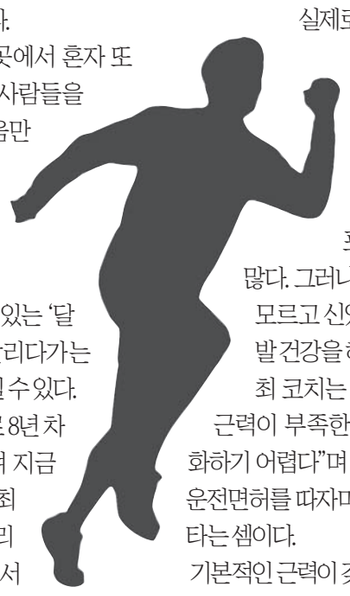
편한 운동화와 운동복만 있으면 장소도 크게 구애 받지 않는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너도나도 운동 하나씩은 취미로 또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요즘, 남녀노소 누구나 어디에서든 쉽게 할 수 있는 '달리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다른 종목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도 적은 편이다.

달리기 동호회는 수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꼭 동아리에 가입해야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지내는 곳곳에서 혼자 또는 삼삼오오 달리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뛸 수 있다.



▣시작은 자신의 발 파악부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달리기'지만 무작정 달리다가는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

육상 선수 출신으로 8년 차 '러닝 코치'로 일하며 지금도 매일 달리고 있는 최재빈 러닝코치는 달리기 예찬론을 펼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달리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의욕만으로 달리다가는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고 더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조언이다.

최 코치는 "달리기는 장소 제약도 없고 돈도 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하지만 무턱대로 달렸다가는 오히려 무릎이나 발목, 햄스트링 등에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발을 잘 파악해서 그에 적합한 러닝화를 구매하는 것이다.

최 코치는 가급적 자신의 발을 분석한 뒤 신발을 선택할 것을 권했다. 최근에는 러닝화 파는 매장 등에서 발 모양에 대한 풋 스캐닝 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평발을 비롯해 사람들의 발 모양은 다 다르다"면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러닝화가 있으니 자신의 발을 분석한 뒤에 신발을 선택했으면 한다. 부상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발이 어떤 형태인지를 확인하고 잘 맞는 러닝화를 착용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최근 유행하는 운동화 중에는 앞꿈치로 달리는(포어풋) 아프리카 선수들의 주법에 맞춘 포어풋 카본화가 많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신었다가는 오히려 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최 코치는 "카본화의 경우 근력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소화하기 어렵다"며 "자동차로 치면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스포츠카를 타는 셈이다.

기본적인 근력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오히려 종아리 파열이나 발목 염좌 등도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달리기 주법은 크게 뒤꿈치를 사용하는 리어풋, 발중앙을 모두 쓰는 미드풋, 앞꿈치를 이용하는 포어풋 등이 있는데 무엇이 낫다, 나쁘다 정해진 정답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포어풋 주법의 경우, 아직 근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러닝 초보자들이 구사할 경우 자칫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조언이었다.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자원봉사자 발대식 후 성공대회를 다짐하고 있다.

내일 '예천 2024현대양궁월드컵' 막올라

21~26일 예천진호국제양궁장
50개국 514명 선수단 참가…
'양궁의 메카' 예천 입지 구축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대회가 21일 막오른다.

예천군은 21~26일까지 6일간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경기를 치른다.

군은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2차 대회 준비를 완료, 선수맞이에 여념이 없다.

군은 곧 시작될 대회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감돌고 있다.

김학동 조직위원장은 "활의 고장 예천에서 펼쳐질 짜릿한 양궁 월드컵을 모두가 한마음이 돼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국가대표 김제덕 선수(예천군청 소속)의 파이팅 넘치는 에너지와 세계적인 선수들의 수준 높은 양궁 경기를 직관할 수 있는 이번 대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군은 지난해 7월 대회 준비를 위한 양궁월드컵 TF팀을 신설, 조직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장 본부석, 전광판, 음향시스템, 야외화장실 등 시설 개보수를 완료하고, 임원실, 기록실 등 각종 기능실 새단장도 올해 초 마무리했다.

국제규격에 적합한 경기용 기구들을 준비 완료했다.

예천의 푸른 잔디와 소나무가 조화로운 결승경기장을 조성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수단 이동을 위해 250여 대의 차량을 투입. 입·출국 수송을 돕고 숙소와 양궁장 간 셔틀 운행 계획도 수립했다.

예천권병원을 공식 병원으로 지정, 각종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했다.

예천 관내는 물론 선수단 숙소가 위치한 인근 시군 경찰· 소방과도 연계해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일부터 예천군 공공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에서 결승 경기 온라인 입장권 예약 서비스를 했다.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현장 선착순 입장도 가능하게 했다.

군은 이번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양궁의 중심도시' 예천으로서의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향후 국내?외 양궁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매진한다.

현대양궁월드컵 대회는 올림픽,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함께 양궁계 3대 행사 중 하나로 세계 양궁 저변 확대를 위해 2006년 창설됐다.

매년 1~4차 대회가 주요 대륙별로 개최, 각 대회 종목별 상위 랭커들을 선발해 파이널 대회를 치르게 된다.

1차 대회는 지난달 23~28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다.

예천에서 열리는 2차 대회(주최 세계양궁연맹, 주관 예천군·대한양궁협회)는 파리올림픽 출전 점수가 부여된다.

대회는 리커브 부문 5개 종목(남·녀 개인2, 단체2, 혼성1), 컴파운드 부문 5개 종목으로 (남녀 ·개인2, 단체2, 혼성1) 열린다.

지난달 30일 최종 엔트리 접수를 마감해 50개국 514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가한다.

송영주 기자

이소미, 미즈호 아메리카스 오픈 2라운드 '선두권'

이소미는 18일(한국시각) 미국 뉴저지주 저지시티 리버티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쳤다.

대회 첫날에는 단독 선두
현재 1위와 불과 2타 차

이소미(대방건설)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미즈호 아메리카스 오픈(총상금 300만 달러·약 41억원) 첫날 단독 선두에 이어 2라운드에서도 선두권에 위치했다.

이소미는 18일(한국시각) 미국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리버티 내셔널 골프 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3개를 묶어 1언더파 71타를 쳤다.

첫날 6언더파로 단독 선두였던 그는 중간합계 7언더파 137타로 2위를 기록했다.

전날보다 한 단계 내려섰지만, 9언더파 135타를 치며 선두가 된 야타야 티티꾼(태국)과 단 두 타 차에 불과한 선두권에 위치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5차례 우승을 달성한 이소미는 올 시즌부터 LPGA 투어에서 활약 중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LPGA 퀄리파잉(Q) 시리즈에서 공동 2위에 오르며 출전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올해 참가한 6개 대회에서 시련을 겪었다. 4차례 컷 탈락했고, 지난달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 기록한 공동 13위가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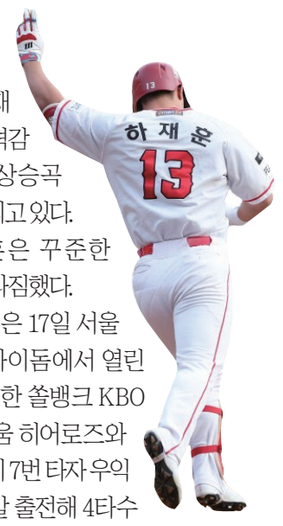
이번 대회는 대기 2번으로 기다리다가 어렵게 기회를 잡았음에도 2라운드까지 상위권에 머물며 시즌 첫 톱10 진입을 넘어 우승 희망을 이어갔다.

이소미는 1번 홀(파4)에서 보기를 기록했다. 이어 4~5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10~11번 홀에선 보기를 맞바꾸며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다행히 13번, 16번 홀에서 버디로 흐름을 바꾸며 다음 라운드를 기대케 했다.

이날 첫 홀인 1번 홀(파4)에서 보기를 써낸 이소미는 4~5번 홀 연속 버디와 10~11번 홀 보기를 맞바꿔 타수를 줄이지 못하다가 13번(파5)과 16번 홀(파4) 버디로 흐름을 바꾸며 3라운드를 기약했다.

한편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는 에리야 쭈타누깐(태국) 등과 6언더파 138타로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랭킹 5위 고진영, 강민지, 앨리슨 리(미국) 등은 4언더파 140타로 공동 15위에 머물렀다.

'2경기 연속 홈런포' SSG 랜더스 하재훈 타격감 상승곡선



SSG 랜더스 하재훈의 타격감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하재훈은 꾸준한 활약을 다짐했다.

하재훈은 1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4 신한 쏠뱅크 KBO 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 7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1홈런 3타점으로 맹활약했다. 하재훈은 4-4로 팽팽히 맞선 8회 결승 솔로 홈런을 쏘아 올리며 팀에 승리를 선사했다. 스트라이크존에 들어온 좌완 불펜 김재웅의 실투를 놓치지 않았다.

경기 후 하재훈은 "역전 홈런을 때릴 기회가 있어서 기분 좋았다. 단타보다 장타가 필요할 것 같아서 노리고 있었는데 좋은 타구가 나와서 기쁘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돌아봤다.

하재훈은 지난달까지 3할 타율을 유지하며 팀 공격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5월 들어 페이스가 하향세를 보였고, 시즌 타율이 0.257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절치부심한 하재훈은 타격 컨디션을 순조롭게 끌어올리고 있다. 2경기 연속 대포를 폭발했고, 최근 4경기에서 타점 7개를 쓸어 담았다.

오늘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필수'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미확인 병원 100만원 과태료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 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나 6개월 이내 재진하는 경우,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은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